

제목 : 한나의 기도
본문 : 삼상 1:1-18

시작찬송가 : 214(새270), 340(새542), 482(새364)
현금찬송가 : 359(새325), 455(새370), 484(새365)

한나는 기도로 아들을 얻은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한나의 신앙은 시련 속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린 후에 응답을 받은 것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고, 또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철저히 이행하는 모습은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의 어머니로서 손색이 없는 자세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한나의 기도와 믿음과 헌신은 성도의 모범입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문제 앞에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 한나의 기도

① 한나는 고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브닌나에게 멸시를 받았으며, 마음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이런 어려움 중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에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삼상 1: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눅 22: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② 한나는 오랫동안 낙심치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길어지는 만큼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의 줄을 굳게 잡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삼상 1:12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창 32: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③ 한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밀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삼상 1:13(상반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④ 한나는 성소에서 기도했습니다. 성소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성소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라는 기대와 신앙은 한나로 하여금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이고, 응답하시며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도 성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출 25:2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사 56:7 내가 그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성도가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소원의 향구로 인도해주십니다.

눅 11: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 18:7-8(상반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 기도하는 손



앨버트 돌러’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어린 시절 무척이나 가난했기 때문에 미술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학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가난한 친구와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돌러야, 우리가 도무지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해 보자. 네가 먼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렴. 나는 식당에 가서 돈을 벌어 너의 학비를 마련할게. 그 다음에 또 네가 나를 위해 도움을 주면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제의 하면서 ‘앨버트 돌러’를 위해 땀 흘리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돌러에게 학비를 보냈습니다.

돌러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미술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그의 그림도 서너편씩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돌러는 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그 친구는 마침 식당의 한 모서리에서 친구 돌러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님! 저의 손은 이미 험한 일을 하여 굳어져 섬세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몫을 돌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하소서.”

옆에서 지켜보던 돌러는 자기를 위해 희생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친구의 손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러는 붓을 들어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곧 ‘앨버트 돌러’의 유명한 「기도하는 손」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 한나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1.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하여.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2.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3.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4. 천안함 문제가 잘 해결 되도록.
5. 군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